

교활한 日, 美서 '고노담화 검증' 대대적 선전

자신들의 입장 정당화한 영문 자료, 학자 등에 전파

“한일간 정치적 타협 산물·보상 완료”... 책임 회피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 이후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대대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도 한·일간의 면밀한 문안조정을 거쳐 담화가 작성됐고 보상도 모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묘하게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이하 현

시시간) 본국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직후부터 일본 측은 입장을 정당화하는 영문 설명자료를 작성해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전파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24일 전했다.

일본 측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검증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작성과정을 밝히려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보고서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대해 정부 밖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고노

담화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정부에 의해 유지된 역사 인식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에는 고노담화 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며 “고노담화는 한·일간 조정에 기초한 것이며 양국은 외교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료하고 미래지향적 양자관계를 수립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노담화가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에 따른 산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암한다.

일본 측은 나아가 “우여곡절이 있었지

만 한국의 과거 위안부 여성 61명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으로 1인당 200만 엔을 받았으며 1인당 300만 엔에 달하는 의료·복지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거론한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모금과 정부의 출연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한국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홍보전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한국 측의 논리를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北·日, 내달 중국서 국장급 협의

납치 문제 조사위 구성 관련 아베 총리 “방북 계획 없다”

북한과 일본이 내달 1~2일 중국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인 TBS가 25일 보도했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나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은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개시 시점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를 열어 인적왕래 금지 등 대북 독자 제재의 일부를 합의한 대로 해제할 예정이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6~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 중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막가는 日, 집단 자위권 용인 헌법 해석 변경안 연립여당 합의

내달 1일 국무회의서 변경 결정 자위초치 범위 동맹국까지 확대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달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대략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아베 정권은 이 같은 일정

으로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24일 열린 자민당과 공명당 간 9차 협의에서 자민당이 각의 결정문의 핵심이 될 '무력행사 3요건' 수정안을 제시하고, 공명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두 당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입장을 반영, 무력행사 3요건 중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단어들을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은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협’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각각 대체했다.

또 이러한 경우의 무력행사도 ‘자위 조치’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됐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수정안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명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 자민당과의 후속 협의에서 동의 의사를

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차기 연립여당 협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前집권 푸어 타이당 해산 위기... 색깔론 타파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전 집권당인 푸어 타이당이 해산 위기 직면했다.

2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푸어 타이당 고위 당국자들은 군정 당국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가 푸어 타이당의 해산을 의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CPO는 이른바 '색깔 정치' 타파를 추진 중이며, 이 일환으로 '레드 셔츠' 운동가들과 밀접한 관계인 푸어 타이당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태국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려고 시위 때 붉은 옷을 입는 '레드 셔츠' 운동가들과 군부, 왕실, 관료 등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옐로 셔츠' (노란 옷)파로 나뉘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세 정부 앞둔 이라크, 계속된 내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도 이라퀼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수니파 무장세력의 급속 준동과 관련 “위기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라크의 새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전날 바그다드에서 알 말리키 총리는 물론 수니파 지도자들과 만나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새 정부 구성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사진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시아파 카르발라에서 의용군들이 훈련하는 모습.

중국서 '왕 서방' 찾기 쉽다

전체 인구 7%인 9468만명 중현대대보 보도... 리·장쩌 순

중국의 최대 성씨는 왕(王)씨이고 그 다음은 리(李)씨, 장(張)씨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으로 왕씨는 9468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 13억 3000만 명의 7.1%를 차지했고, 리씨는 9276만 명(6.9%), 장씨는 8550만 명(6.4%)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현대대보(現代快報)가 국

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중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왕, 리, 장씨인 셈이다.

그 다음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성씨는 류(劉)씨 5.1%, 천(陳)씨 4.2%, 양(楊)씨 2.9%, 황(黃)씨 2.1%, 자오(趙)씨 2%, 저우(周)씨 1.8%, 우(吳)씨 1.7%로 조사됐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총 2만4000 개의 성씨가 나타났다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 인턴 채용 9만명 몰려

여름 인턴 1000여명 채용 90:1 브랜드 파워 입증

모건스탠리의 여름 인턴 채용에 모집인원의 90배인 9만명이 몰렸다.

모건스탠리는 여름 애널리스트-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9만 명 가운데 1000여 명의 학생을 최근 채용했다.

여름 애널리스트는 여름 동안 채용되는 대학생들에게 붙는 명칭이며, 여름 어소시에이트는 대학원생들을 부르는 용어다.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6년간 브랜드와 명예가 훼손됐다 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지원자 수는 이목을 끌 만하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마코브

스키가 최근 발표한 2014 월스트리트 평판 연구에서 금융서비스 기업의 81%는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들은 부정적인 평판 때문에 27%의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모건스탠리 브랜드가 분명히 대학 캠퍼스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최고의 인재를 모집하고 채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권고를 받은 지원자의 80% 이상이 수용했다”며 “하계 인제 풀은 275개 이상 학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숯으로 만든 청정 구이판에 인덕션을 적용하여 구이판만 가열해 불 없이 고기를 구워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신개념의 웰빙 제품입니다.

직화구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향후 정부 규제 대상 인테리어 비용이 30% 이상 절감, 연료비는 가스 대비 7:1 이상 절감 호열 및 고급 한식당에서도 냄새, 연기 걱정 없는 구이 가능

제품구성

가열원리

고구이 에너지 비교표 | 통계자료: 한국전력공사, 강남에어(2014년 기준)

비교 항목	합솔불	도시가스	에코21그릴
에너지 가격(시정기준)	1,000원/kg	1,100원/㎥	100원/kwh
시간당 에너지 비용	1,000원(1kg)	737원	527원(100W/1.3kw)
30대 1일 3시간 기준 소비 비용	1일	90,000원	66,330원
	1월	2,700,000원	1,989,900원
	1년	32,400,000원	23,878,800원
덕후생체가스배출(시정)	불요	불요	불필요
가스배출시정	불필요	불요	불필요
가스배출정기 비용(1년기준)	300,000원	300,000원	불필요
취부전환비(1년기준)	14,400,000원	불필요	불필요
발전세비용	불요	불요	불필요
바세코발열체비용(50명기준)	에너지 150명이상 설치	에너지 150명이상 설치	에너지 50명 설치
연간 총운영비	47,100,000원	24,178,800원	4,212,000원

설치시전 ▶ 청정 | 숯불 환경오염

에코21그릴 구이모습 일반 직화구이 모습

시험성적서 | 정부지원 시험 연구기관

항목	기준	고구이 시험 전		고구이 시험 후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미세먼지(PM-10)	140 (µg/m³)	372	37.8		
이산화탄소(CO2)	1,000 (ppm)	787	832		
일산화탄소(CO)	9 (ppm)	1.0	1.0		
포화탄화수소(HCHO)	100 (µg/m³)	60.3	60.1		
매연	도	0	0		

*상기 5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 전, 후(고구이 전, 후) 약 4시간 동안 실내공기의 변화를 측정

호남 지역 대리점 및 총판을 모집합니다~!!

상세내용은 **NAVER** 으로 검색해 보세요!

고객 문의 및 상담 : **055-607-0750, 0762, 0763** | fax. 055) 607_0751

제조/판매: (주)서영시스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암로 50 SK테크노파크 넥스존 810호 | www.숯과인덕션.com

2014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2014. 6. 27 (토) ~ 6. 29 (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여 합니다.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제 1전시장 A121~122부스

• 날짜: 2014년 06월 27일부터~29일 10:00~18:00 관람가능.

전시회 기간 중 호남 지역 대리점 또는 총판 모집 예정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의 방문 요청 드립니다.

대리점 개설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 전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기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고기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구워 보시기를 권장 합니다.(삼겹살 등은 구비 되어있음)